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한복형으로 디자인된 원복(활동복)을
유아기 때부터 접하며 우리 고유의 의복이라는
문화적 가치와 전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 세 살 한복 여든까지 깁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복의 실생활화와 한복문화 확장을 위해 한복형 원복(활동복)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살 한복 여든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한복형 원복(활동복)을 만들고 보급함으로써 유아기 때부터 한복과의 친숙함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옷고름, 동정, 깃, 색동 등 한복의 특징이 들어있으며, 한복 및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한복형 원복(활동복) 보급을 통해 한복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정체성을 알리고 우리나라 고유 의복에 대한 문화인식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전통의 맛을 더한 누빔배자

착용감이 좋은 뽀송한 면누비 겹감과 20수 피그먼트 면옥스퍼드 안감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없습니다. 옆부분이 트임으로 되어있어 활동하기 편하고, 앞이 뒤보다 짧은 디자인으로 앉을 때의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단춧고리는 늘어나는 울밴드로 제작되었습니다. 포인트로 알록달록한 색동단추를 달았습니다.





밴드로 실용성을 더한 사복바지

전통사복바지의 큰사폭, 작은사폭, 마루폭으로 구성되었고 허리와 발목은 밴드로 처리되어 입고 벗기가 편합니다. 덕분에 활동성이 많은 개구쟁이들도 마음 편히 입을 수 있습니다. 제원단을 넘겨 밴드 처리하고 봉제선을 줄여 피부에 닿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손이나 작은 소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마루폭에 넣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목판깃과 웃고름을 더한 저고리형식의 셔츠

모달이 포함되어 포근하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트임이 되어있는 디자인으로 입고 벗기가 편하며 목밴드와 손목밴드에는 제원단을 사용했습니다. 한복 저고리의 목판깃을 응용한 목밴드와 웃고름 모양이 부착된 앞여밈 장식이 포인트입니다.

